

러시아정부, 2002년 민영화계획 확정

- 러시아정부는 최근 국내 최대 석유회사인 Lukoil사의 지분 5.9%, 5위권 석유회사인 Slavneft사의 지분 19.68%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26개 주식회사 및 150개 독점기업의 지분 매각을 포함하는 2002년도 민영화계획을 확정하므로써 일정부문 세원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, 2002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Lukoil 석유회사 지분 5.9%의 매각은 외국시장에서 DR(Depositary Receipts)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, 매각가격은 6~8억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작 설립한 Slavneft 석유회사의 지분 매각은 2002년 3/4분기중 경매를 통해 추진되며, Lukoil, Yukos, Sibneft, Tyumen 등 대부분의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각가격은 6억달러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 - o 특히, Slavneft 석유회사의 지분 12%를 기 보유하고 있는 Tyumen 석유회사(TNK)는 Slavneft 석유회사의 지배지분을 확보할 의향을 가지고 적극적인 인수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 - o TNK는 Slavneft 석유회사의 주요 에너지 생산회사인 Megionneftegaz의 지분을 27% 보유하고 있으며, 동사의 주요 석유정제회사인 Yaroslavnefteorgsintez(YaNOS)의 지분도 49%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- 러시아정부는 Slavneft 석유회사의 지분 19.68%을 매각하더라도 여전히 55.27%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, 벨라루스는 10.68%를 보유하게 되어 조만간 추가적인 지분매각작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